

numbers 제 96호



주요 내용

2021.05.21

- 이번 주 주제 : [크리스천 가정의 부부/자녀 관계]
 - 주일예배 드리는 자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일상/신앙생활 모두 긍정적 지표가 높게 나타나!
- 최근 언론보도 통계
 - [한국의 직업 인식]
 - 전체 직업 만족도, '치과 의사'가 가장 높고, '음식 배달원'이 가장 낮아!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주일예배 드리는 자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일상/신앙생활 모두 긍정적 지표가 높게 나타나!

코로나19가 발생되고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초기 시점인 작년 5월에 목회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어려운 점으로 '교인들의 소속감 약화'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동일한 문항에 대해 목회자들은 '다음세대 교육 문제'를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코로나19로 불안감 속에 1년을 지내오면서 다음세대 문제의 심각성을 목회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번 IFMJ가정의힘 조사결과, 주일예배를 자주 드리는 자녀와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 간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았더니 뜻밖의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주일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여러 가지 지표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 학교를 운영하는 교역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데이터가 아닐 수 없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96호는 지난 호에 있어 두 번째로 크리스천 가정의 부부 관계, 자녀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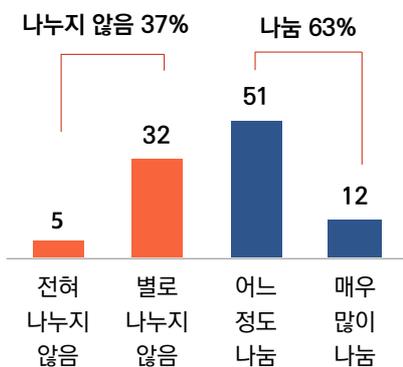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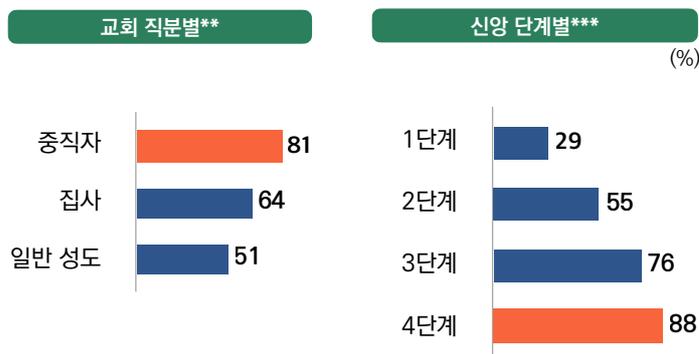
크리스천 부부 10가정 중 4가정 가까이(37%), 부부 간 신앙적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 가정에서 크리스천 부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적인 대화를 얼마나 할까? 이에 대해 부부 모두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대화를 나눈다'(매우+약간) 63%,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별로+전혀) 37%로 크리스천 부부 10가정 중 4가정 가까이 평소 가정에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부부 간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교회 중직자일수록 높았고, 신앙수준이 깊을수록 높았다.

[그림] 가정에서 신앙과 영적인 대화 빈도(%)
(부부 모두 교회 출석자 기준)



[그림] 신앙과 영적 대화 '나눈다' 비율(부부 모두 교회 출석자, 계층별)**



*자료 출처 : 한국FC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나눈다 비율임

*** 신앙 수준 : 신앙이 가장 낮은 단계(1단계)를 표현하는 문장부터 가장 깊은 단계를 표현하는 문장(4단계) 4개를 순서적으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응답자 본인의 신앙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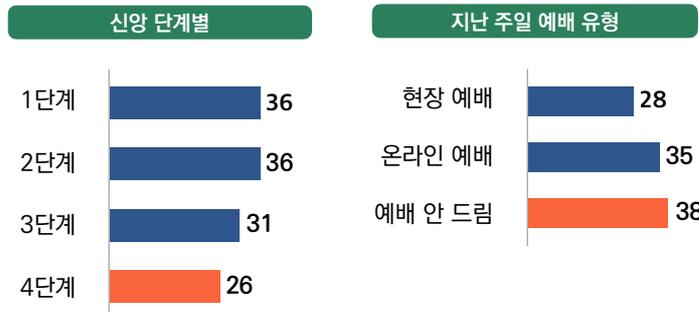
● 크리스천(기혼자) 3명 중 1명, '요즘 배우자와 갈등 있다'

- 크리스천들은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와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즘 배우자와 갈등이 있는지 질문했는데, 3명 중 1명 가량(33%)이 '갈등이 있다'고 응답했다.
- 부부 갈등 비율은 신앙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와 연관돼서 지난주 현장 예배자보다는 온라인 예배자나 아예 예배를 못 드린 층에서 갈등 비율이 높았다.
- 또한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갈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요즘 배우자와 갈등 정도 (%)



[그림] 요즘 배우자와 '갈등 있다'(매우+어느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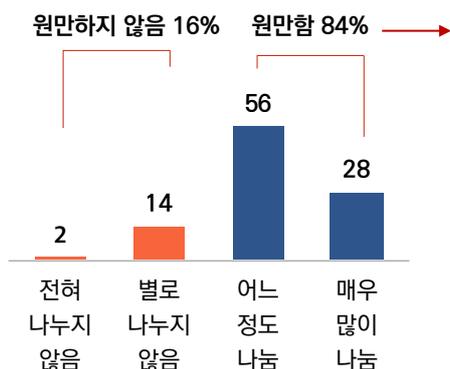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FC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4점 척도 질문임

● 크리스천(기혼자) 6명 중 1명, 부부 간 갈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배우자와 갈등 시 원만하게 해결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 84%, '그렇지 않다' 16%로 전체 크리스천 가정 6가정 중 1가정은 부부 간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부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가정은 신앙 수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신앙이 깊을수록 갈등 시 원만하게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 주로 누가 화해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서로 비슷' 54%, '남편' 30%, '아내' 16%로 아내보다는 남편이 먼저 화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배우자와 갈등 시 해결의 원만한 정도



(%)

신앙 수준별**	
1단계	78%
2단계	82%
3단계	88%
4단계	90%

[그림] 배우자와 다툼 시 주로 먼저 화해하는 사람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신앙 수준 : 신앙이 가장 낮은 단계(1단계)를 표현하는 문장부터 가장 깊은 단계를 표현하는 문장(4단계) 4개를 순서적으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응답자 본인의 신앙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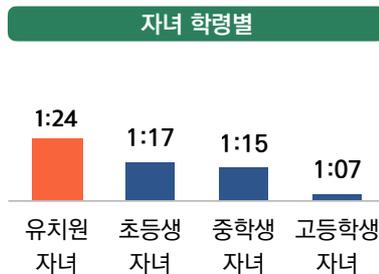
● 신앙 수준이 깊을수록 배우자와 대화 시간 길어!

- 배우자와 대화 시간은 평일 1시간 16분, 주말 2시간 30분으로 주말이 평일보다 두 배가량 더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와 대화 시간은 자녀 학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 학령이 높아질수록 부부 대화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한편, 신앙 수준과 부부간의 대화량과도 상관성을 보이는데, 신앙 수준이 깊을수록 배우자와 대화 시간이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배우자와 대화 시간(시간:분)



[그림] 배우자와 대화 시간(평일)



(시간:분)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신앙 수준 : 신앙이 가장 낮은 단계(1단계)를 표현하는 문장부터 가장 깊은 단계를 표현하는 문장(4단계) 4개를 순서적으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응답자 본인의 신앙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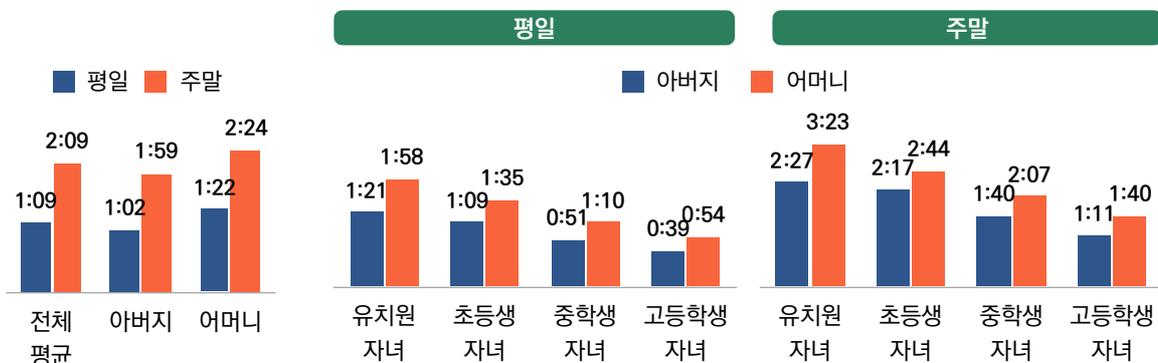
2



자녀 학령이 올라갈수록 부모-자녀 간 대화 시간 급격히 줄어들어!

- 자녀 학령이 올라갈수록 자녀와 대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평일 하루 대화 시간이 아버지 39분, 어머니 54분으로 채 1시간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별 자녀와 대화 시간을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대화 시간이 평균 1.2~1.3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자녀와 대화 시간은 경제 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징을 보였으며, 부모 신앙 수준이 깊을수록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자녀와 대화 시간(시간:분) [그림] 자녀와 대화 시간(부모/학령별)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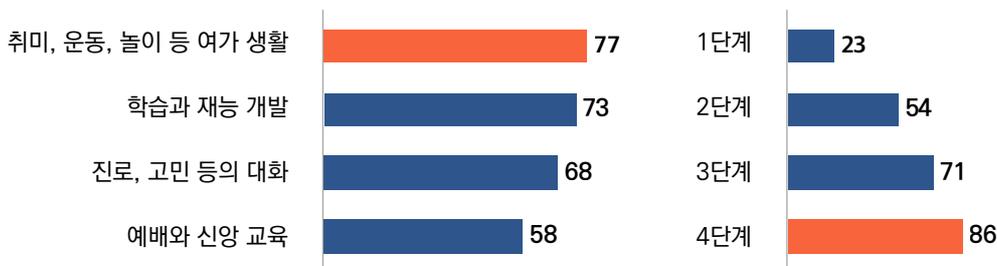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IF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신앙 수준이 깊은 부모일수록, 자녀 신앙 교육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

- 부모가 평소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대해 여가 활동, 학습과 재능 개발, 진로 고민 등의 대화는 70% 안팎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예배와 신앙 교육은 5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부모 신앙 수준이 깊을수록 제시된 항목 모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이 특징적이며, 특히 자녀 신앙 교육 시간의 경우 크게 높았다.
- 또한 제시한 항목 모두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자녀와 시간 보내는 정도(많은+약간 시간을 보낸다, (%)) [그림] 자녀 신앙 교육에 보내는 시간(많은+약간 시간을 보낸다 응답률, 부모 신앙 수준별***)(%)



*자료 출처 : 한국IF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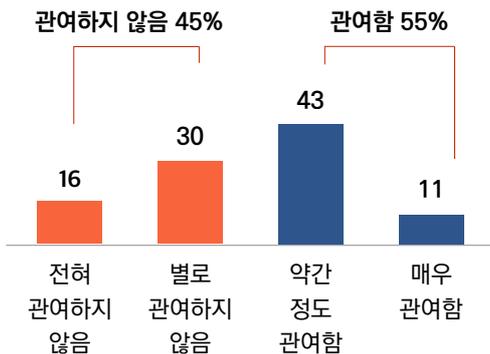
** 4점 척도 질문으로 여기서는 (많은+약간) 시간을 보낸다 응답률임

*** 신앙 수준 : 신앙이 가장 낮은 단계(1단계)를 표현하는 문장부터 가장 깊은 단계를 표현하는 문장(4단계) 4개를 순서적으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응답자 본인의 신앙 수준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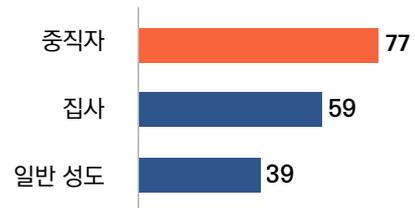
● 그러나 크리스천 아버지의 45%는 자녀 신앙 교육 관여하지 않아!

- 아버지가 자녀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데 얼마나 관여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관여한다’ 55%, ‘관여하지 않는다’ 45%로 관여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만, 45%나 되는 아버지가 현재 자녀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데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자녀 신앙 교육 관여도는 부모의 교회 직분이 높을수록 또는 신앙 수준이 깊을수록 크게 높아지는데, 특히 부모가 중직자인 경우 77%, 집사 59%, 일반 성도 39%로 나타나, 직분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아버지의 자녀 신앙생활 지도 관여도*** (%)



[그림] 아버지의 자녀 신앙생활 지도 '관여한다' 비율 (부모 직분별)** (%)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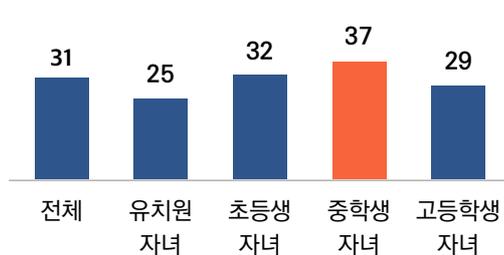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관여한다 비율임

*** 긍정/부정 합계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반올림으로 인한 Rounding Error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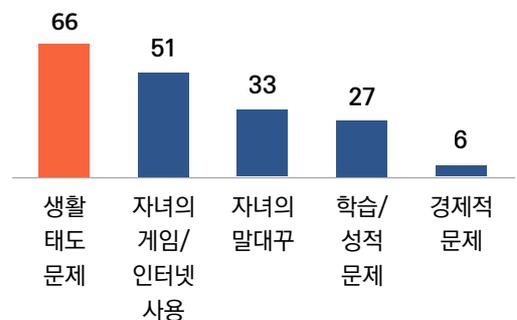
● 자녀와 갈등, 중학생 자녀와 갈등이 가장 커!

- 자녀와 갈등 관련, '갈등이 있다'는 응답이 31%로 10가정 중 3가정 정도의 부모가 현재 자녀와 갈등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중학생 자녀와 갈등이 37%로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자녀와 갈등 이유(1+2순위)를 살펴보면, '생활 태도 문제'가 66%로 압도적으로 1위로 응답됐고, 다음으로 '자녀의 게임/인터넷 사용' 51%, '자녀의 말대꾸' 33%, '학습/성적 문제' 2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녀의 게임, 말대꾸 등 전체적인 생활 태도에 대한 부모의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학습/성적 요인은 큰 갈등 요인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림] 현재 자녀와 갈등 '있다'(매우+약간)** (%)



[그림] 자녀와 갈등 이유(1+2순위, 상위 5위) (%)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4점 척도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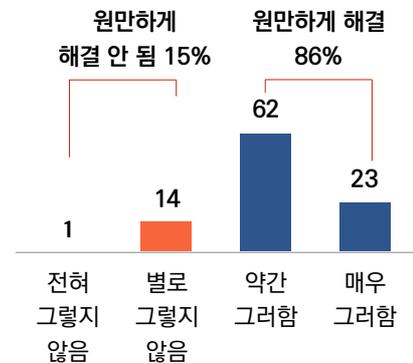
● 자녀가 잘못했을 때, 중고생 부모의 경우 4명 중 1명 이상, 자녀 관계가 나빠질까봐 잘못을 지적하지 못해!

-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차분하게 잘못을 지적한다’가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엄하게 야단친다’ 18%, ‘자녀와 관계가 나빠질까봐 좋은 말로 달랜다’ 17%, ‘모른척하고 넘어간다’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 학령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인데,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즉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좋은 말로 달래거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중학생 부모는 24%, 고등학생 부모는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와 갈등 시 해결이 원만했는지 질문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부모가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응답했는데, 15%의 부모는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대응 태도



(%) [그림] 자녀와 갈등 시 해결의 원만함 정도 (%)



*자료 출처: 한국IF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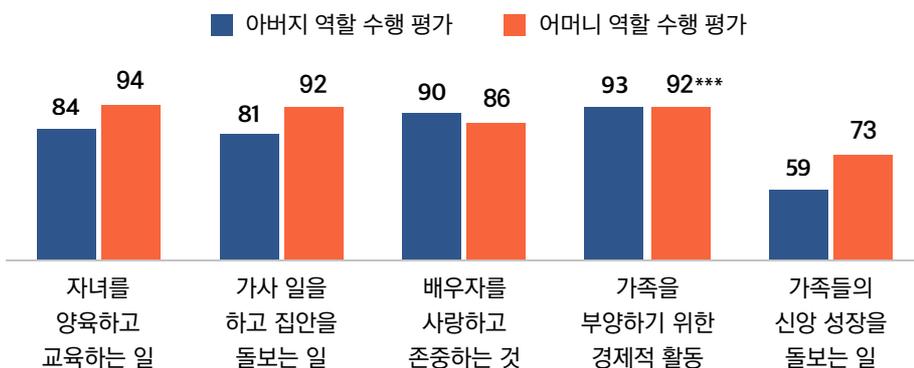
3



가족의 신앙 돌봄, 남편보다 아내의 역할이 더 크게 나타나!

-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평가를 각각 물어본 결과, '자녀 양육', '집안 돌봄', '신앙 돌봄'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잘한다는 평가가 높고, '배우자 사랑'은 남편이 더 잘한다는 평가가 높다.
- 전체적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의 신앙 돌봄' 항목이 5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남편보다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그림] 가정 내 아버지 vs 어머니의 역할 수행 정도('잘하고 있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FJ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비율임

***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질문에서 어머니 역할 평가는 '맞벌이 부부'의 응답 결과임

●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적 활동' 56%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 50%

-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적 활동'이 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20%,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이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22%,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돌보는 일'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아버지는 가족 부양, 어머니는 자녀 양육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있는데, 주목할 점은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



*자료 출처 : 한국FJ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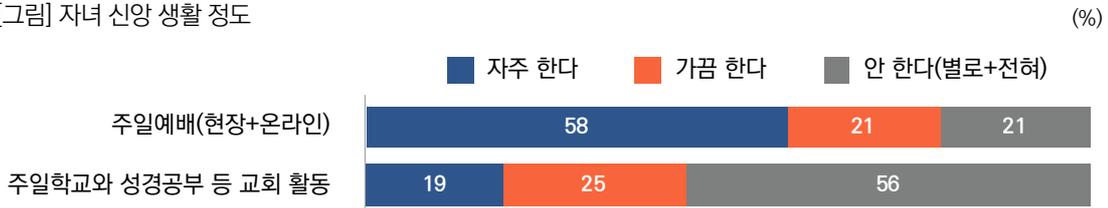
4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 42%, 주일예배 안 드리거나 가끔 드려!

- 자녀의 신앙(교회) 생활을 부모에게 질문했는데 그 결과, 자녀가 온라인 예배를 포함하여 '자주 주일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경우가 58%로 나타났으며, '가끔 드린다' 21%, '안 드린다(별로+전혀)' 21%로,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 5명 중 3명 정도(58%)만 자주 예배를 드리고, 42%는 가끔 드리거나 아예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자녀가 주일학교 이외 성경 공부 등의 교회 활동을 하는지 질문한 결과, 19%만 '자주 한다'고 응답했고, '가끔 한다' 25%, '안한다'(별로+전혀) 56%로 예배 이외 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크리스천 가정 자녀의 절반이 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자녀 신앙 생활 정도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부모들은 자녀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 이번에는 자녀의 역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자녀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부모 순종', '몸과 마음의 건강', '학업 열중' 측면에 대해 80% 이상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나 '집안일 돕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자녀의 역할 수행 "잘하고 있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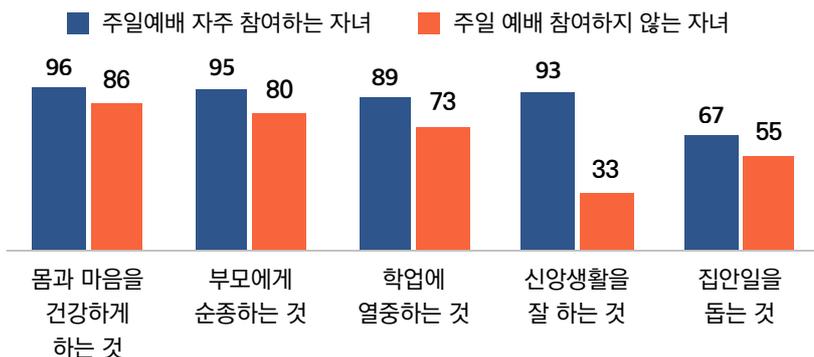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4점 척도 질문으로 각 항목에 대해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주일예배 드리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모두 긍정적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나

- 자녀의 역할 수행에 대해 주일예배를 자주 드리는 자녀와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 간에 항목별 응답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일예배 드리는 자녀에게서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모두 긍정적 지표가 더 크게 나타나, 비록 부모의 응답 결과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자녀의 역할 수행 “잘하고 있다” 응답률**(자녀의 주일예배 참여 여부별) (%)



*자료 출처: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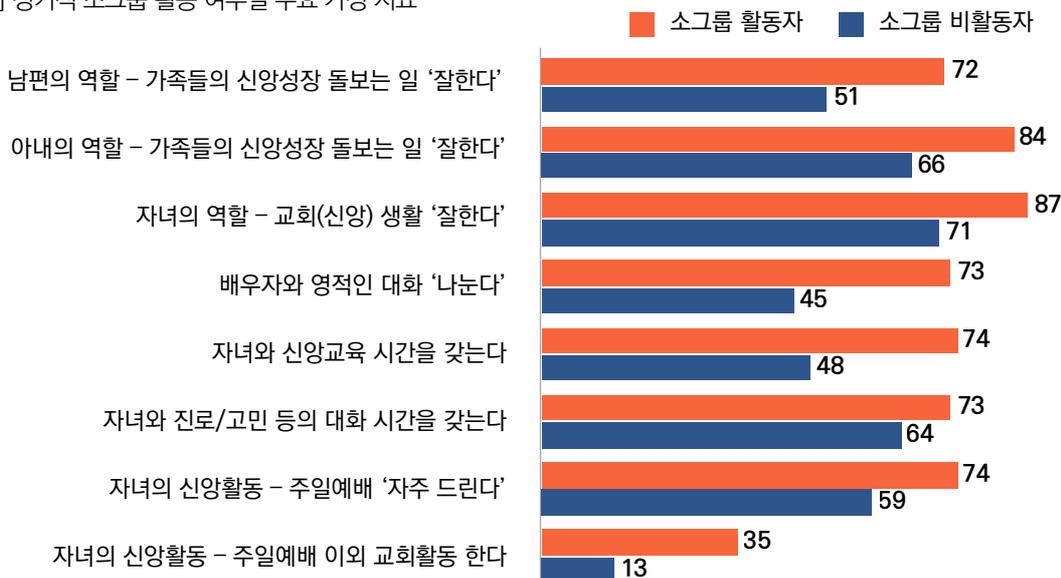
5



정기적 소그룹 활동자, 비활동자보다 가족 관계와 자녀 신앙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 정기적 신앙적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를 구분하여, 두 그룹 간 가족 관계와 자녀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소그룹 활동 그룹이 비활동 그룹보다 가정내 신앙적 활동 지표가 더 긍정적이며, 자녀의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정기적 소그룹 활동 여부별 주요 가정 지표



*자료 출처: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시사점

사람의 인격은 언제 형성될까?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학자는 3세 이전에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조금 더 늦은 시기를 잡기도 한다. 대략 5~10세에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 성장 환경, 형제 관계 등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한다. 자녀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란다. 이 시기에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인격 형성에 가정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성숙한 부모가 자녀의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다.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먼저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갈등 있다 33%, 3쪽 참조). 인간 세상에서 갈등이 없는 데는 없듯이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갈등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어디 이뿐이라.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신앙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게 되므로 부부 간의 갈등이 크게 번지지 않는다고 보인다. 부부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성격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성장해서도 부부 관계에서 갈등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만한 크리스천 부모 밑에서 성장한 가정의 자녀는 보다 더 원만한 인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 양육에서 부부의 역할은 어떨까?

전통적으로 남편은 외부의 경제 활동에 전념하고 아내는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는 것으로 부부 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오늘날은 그런 당연하다는 인식은 많이 사라졌지만 현실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한다.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자녀는 특성이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보다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정 교육에서 아버지의 미미한 역할은 균형잡힌 인격을 자녀가 가지게 될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모, 특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마련할 수 있다. 교회학교는 일반 학교를 본 따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일반 학교처럼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구분해서 운영되고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 체계를 조금 바꿔서 교회학교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기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교회학교는 주일 특별 프로그램 혹은 여름/겨울성경학교나 수련회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기회를 통해 평소 가정에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나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 요즘 캠핑이 하나의 트렌드이고, TV방송에서도 캠핑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아با와 함께 하는 성경캠핑 등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고, 잘 이해하며 받아들인다면 평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녀는 원만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한국의 직업 인식>

전체 직업 만족도, '치과 의사'가 가장 높고, '음식 배달원'이 가장 낮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한국의 직업 인식

한국고용정보원에서 570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 17,1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조사하여 작년 말에 ‘2019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1



전체 직업 만족도, ‘치과 의사’가 가장 높고, ‘음식 배달원’이 가장 낮아!

- 570개 직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치과 의사’였고, 그 다음으로 ‘비뇨기과 의사’, ‘한의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0개 중 7개가 의료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음식배달원’이었고, 다음으로 ‘주유원’, ‘구두 미화원’ 순으로 주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직군과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 생산직 직군 등 블루칼라 직군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 세부 직업별 만족도(상위 20위 vs 하위 20위)

순위	만족도 상위 10위 직업	만족도 하위 10위 직업
1위	치과 의사	음식배달원
2위	비뇨기과 의사	주유원(주유 판매원)
3위	한의사	구두미화원
4위	가정의학과 의사	조직원
5위	대학교수	세탁 기계 조작원
6위	안과 의사	고무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7위	보건/의료 관리자	표백/염색기 조작원
8위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9위	변호사	청소원
10위	산부인과 의사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계 조작원
11위	감정 평가사	신발 제조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2위	이비인후과 의사	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위	대학교 총장 및 대학 학장	선박 갑파원
14위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15위	판사	비금속 광물 가공 관련 조작원
16위	약사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17위	세무사	철골공(강구조물 건립원)
18위	법률 관리자	택시 운전사
19위	방사선과 의사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20위	외과 의사	호텔/레스토랑 웨이터/웨이트리스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19 한국의 직업정보’ 2021.04.08(서울 및 6대 광역시 570개 직군, 재직자 17,100명, 대면조사, 2019.06-10)

**직업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의 만족도를 물어 합산한 결과임

- 설문에서 제시한 8가지 항목 : 1)사회적 평판1(사회적 기여) 2)사회적 평판2(자녀의 직업 선택 권유), 3)사회적 평판3(자녀의 직업 선택 시 지지), 4)고용안정, 5)발전가능성, 6)근무조건, 7)전반적 직무만족, 8)급여 만족

2



최근 5년간 기술에 의한 직업 세계 변화가 큰 직업 1위, ‘빅데이터 분석가’

- 최근 5년간 기술 변화로 인해 응답자의 직업 세계에 변화가 있었는지 9가지 항목**을 질문하여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570개 직업 중 ‘빅데이터 분석가’가 기술에 의한 변화가 가장 큰 직업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기술변화로 인해 앞으로 자신의 직업이 기계/장비로 얼마나 대체될 것인지 물어보았다. 기술변화로 인해 향후 5년 이내 업무의 75% 이상이 기계/장비로 대체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

[표] 최근 5년간 기술에 의한 직업 세계 변화가 큰 직업(상위 20위)

순위	직업 분류
1위	빅데이터 분석가
2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프로그래머)
3위	방송 연출가
4위	보험 인수 심사원
5위	자동차 공학 기술자
6위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7위	지적 및 측량 기술자
8위	IT 테스터 및 IT QA 전문가(SW 테스터)
9위	철도 기관차/전동차 정비원
10위	경영 컨설턴트
11위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12위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 수리원(컴퓨터 제외)
13위	태양광 발전 연구 및 개발자
14위	데이터 베이스 개발자
15위	보건 위생/환경 검사원
16위	정보 통신 관리자
17위	산업 전기공(항공기/선박/철도 기관차/전동차 전기공)
18위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19위	3D 프린팅모델러
20위	IT 기술지원 전문가

[표] 향후 5년 이내 기술변화로 기계/장비로 업무 대체 비율이 높은 직업(상위 20위)

순위	직업 분류
1위	주유원(주유 판매원)
2위	보험 심사원
3위	통신기기 판매원(핸드폰 판매 및 가입)
4위	계기 점검원 및 가스 점검원
5위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6위	타이어/고무제품 생산 기계 조작원
7위	총무 및 일반 사무원
8위	금융 자산 운용가
9위	은행 사무원(출납 창구 제외)
10위	생산 관리 사무원
11위	투자 분석가
12위	보험 계리사
13위	자동차 영업원(자동차 딜러)
14위	웹프로그래머
15위	환경 시험원
16위	하역/적재 종사원
17위	드론 조작원
18위	출납 창구 사무원
19위	임상병리사
20위	청능사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19 한국의 직업정보' 2021.04.08(서울 및 6대 광역시 570개 직군, 재직자 17,100명, 대면조사, 2019.06-10)

**설문에 제시된 9가지 항목 : 1)새로운 제조기술, 2)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3)새로운 기계나 장비 도입 및 사용, 4)새로운 상품이나 혁신적인 상품, 5)재구조화와 재조직화, 6)교육훈련 필요성, 7)근로자 구조조정, 8)업무 과다, 9)업무 난이도 증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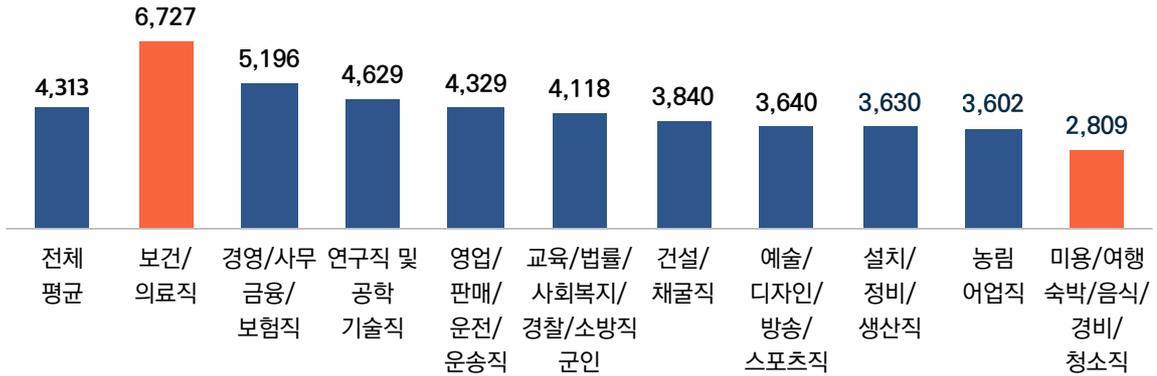


우리나라 10개 직업군(대분류) 기준,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보건/의료직’임

- 전체 직업을 10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각 직업군별 연소득을 측정한 결과, ‘보건/의료직’이 6,727만 원으로 가장 높고,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이 2,809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직업 대분류별 연봉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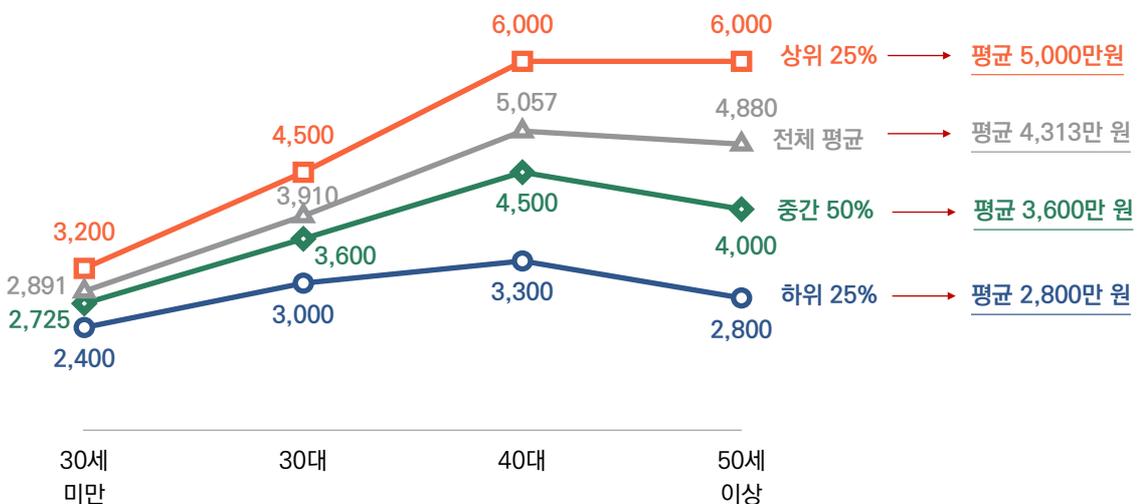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19 한국의 직업정보' 2021.04.08(서울 및 6대 광역시 570개 직군, 재직자 17,100명, 대면조사, 2019.06~10)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소득은 40대 연령층에서 높고, 50대로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 연령대별 연소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0대까지 소득이 증가하다가 50대 이상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구간별로 보면, 하위 75%까지의 층은 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로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상위 25%는 4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50대 이상부터는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연령대별 연봉 차이

(만 원)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19 한국의 직업정보' 2021.04.08(서울 및 6대 광역시 570개 직군, 재직자 17,100명, 대면조사, 2019.06~10)

**하위 25% : 각 연령대별 하위 25% 소득자 수치임, 중간 50% : 각 연령대별 중간 소득자 수치임, 상위 25% : 각 연령대별 상위 25% 소득자 수치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
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48호\(2021년 5월 3주\)](#)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29호 \(2021년 5월 3주\)](#)

일
반
사
회

[코로나에 연애·결혼·출산 미뤄...인구 구조 영향 미칠 것](#)

KBS_2021.05.16.

["K팝듣다 유학 왔어요"...국문과 대학원생 39% 외국인](#)

매일경제_2021.05.13.

[일자리·병원 없고 빈집·폐축사...노년층도 절반 이상 "귀농 원치 않는다"](#)

한겨레_2021.05.17.

[사각지대에 놓인 4050 1인가구, 39%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동아일보_2021.05.17.

[사병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군대를 뒤흔들었다](#)

한국일보_2021.05.17.

["10대 노린 마약 딜러들, 강남 유명학원가 누빈다"](#)

동아일보_2021.05.20.

["자녀체벌금지법 안다" 40% 불과... 훈육·학대 구분 모호](#)

한국일보_2021.05.20.

[21세기 한국 최고발명품은 무엇일까?](#)

매일경제_2021.05.16.

경
제

[20대도 60대도 돌려막기... 카드 대출 32조원 역대 최고](#)

조선일보_2021.05.17.

[코로나 거리두기에도 카페 1만개 늘었다...통신판매업 10만개 ↑](#)

연합뉴스_2021.05.18.

["왜 코인에 열광하냐고?" 순자산 35% 늘 동안 20대만 줄었다](#)

연합뉴스_2021.05.18.

트
렌
드

['N잡러', 요즘 직장인들 부업 열풍](#)

조선일보_2021.05.1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교육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위기 내몰린 대학들](#)

한국일보_2021.05.20.

[10년새 대학 입학자 3만1천여명 감소...96%가 지방대](#)

연합뉴스_2021.05.16.

[교사 64% "AI 보조 교사 도입을"](#)

매일경제_2021.05.14.

기후 환경

[기후위기와 인권](#)

한겨레_2021.05.20.

[세계의 '툰베리'들이 묻는다, 불타는 집을 바라만 보고 있나요?](#)

한겨레_2021.05.16.

칼럼

["MZ 눈치보면서 우린 막 대해"...서글픈 낯 세대, 75~84년생](#)

중앙일보_2021.05.16.

***기획특집. 글로벌교육 혁신의 현장 (조선일보)**

[\[글로벌교육 혁신의 현장 1\] 美 학생 25명 교실, AI 선생님도 25명... 한국은 한 화면 원격수업](#)

2021.05.10.

[\[글로벌교육 혁신의 현장 1\] 美 대표 싱크탱크 "AI로 상상도 못할 몰입형 교육"](#)

2021.05.10.

[\[글로벌교육 혁신의 현장 2\] 강의실엔 교수도 교과서도 없지만... AI 대학, 하버드 아성 흔들다](#)

2021.05.11.

[\[글로벌교육 혁신의 현장 2\] 한국 대학선 50%가 인터넷 강의... "일방적인 주입식"](#)

2021.05.11.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호,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국,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혜숙(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볕회

세미나 안내

이번 넘버즈 보고서에 실은 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주체인 한국IFCJ 가정의힘에서 '한국 크리스천 가정의 신앙전승 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5월 25일(월, 오후 2~4시)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미나 관련 안내입니다

세미나 안내 : [세미나 안내 페이지](#)

세미나 신청 : [여기를 눌러주세요.](#)